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도시의 이미지를 통한 도자조형 연구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by City Image
(Based on Mondrian's Neo-Plasticism)

2014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김 태 희

도시의 이미지를 통한 도자조형 연구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by City Image
(Based on Mondrian's Neo-Plasticism)

지도교수 이명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김 태 희

김태희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약	i
표목차	ii
도목차	ii
작품목차	iii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고찰	3
1. 도시에 관한 고찰	3
1) 도시와 인간	3
2) 도시의 이미지	5
3) 도시의 형태	7
4) 작품 사례	10
2. 몬드리안에 대한 고찰	13
1) 몬드리안의 작품변화	14
2) 신조형주의 (Neo Plasticism)의 개념	61
3)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가우기에 관한 고찰	17
4) 작품 사례	18
 III. 작품제작 및 해설	22
1. 작품계획	20
2. 제작과정	23
3. 작품해설	27
 IV. 결론	35
참고문헌	36
영문초록(Abstract)	38

요 약

제 목 : 도시의 이미지를 통한 도자조형 연구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도시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구축되어진 인공물로 오랜 기간 다양한 변화를 통해 인간의 삶에 있어 필연적 대상이 되었으며 수많은 요소들이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시대를 대변한다. 도시의 이미지는 차갑고 답답하며 때로는 열정과 희망을 포함한다. 이러한 도시의 다양성은 예술의 중요한 소재로 표현되고 있으며, 서양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또한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여 표현 되어졌다.

본 연구는 도시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외적, 내적 특징을 수직, 수평선과 사각 면으로 규정하고 색상과 원형의 텍스처를 통해 도시의 다양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와 유사한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도시의 함축적 이미지를 조형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I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그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 본론을 통해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도시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도시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삶과 도시의 관계 및 도시의 이미지 형성요소를 연구하고, 도시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조와 특징을 통해 도시의 조형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도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미술 분야의 선행 작품을 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작품과 유사성을 지닌 기하학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몬드리안의 관한 연구 및 그의 작품세계인 신조형주의를 연구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몬드리안의 대표적 작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를 통해 도시의 조형적 특징을 형태와 색상을 통해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직, 수평의 격자구조의 선행 작품을 조사하고 조형성을 연구하였다.

III 장은 앞의 연구를 통해 구축된 작품계획과 제작과정 및 해설로 도시의 이미지를 조형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선과 면의 비례 및 색상구성을 정의하고, 점토판의 결합에 의한 기술적 부분 및 전반적 제작과정을 설명하였다. 작품해설에서는 선과 면의 구성 및 전반적 작품의 조형성에 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 결과 면과 선의 구성을 통해 조형적 비례의 균형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미술적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점토판의 결합에 의한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표 목 차

<표 1> 면의 비례	12
<표 2> 면의 깊이 차이	12
<표 3> 실리콘 몰드 조합비	42
<표 4> 흡유 조합비	42
<표 5> 중화도 유약 색상표	52
<표 6> 소성 그래프	62

도 목 차

[도 1] Kevin Lynch. 「도시의 물리적 형태 5가지 유형」	6
[도 2] 규칙형: 직교(격자)형	9
[도 3] 규칙형: 방사형	9
[도 4] 규칙형: 직교방사형	9
[도 5] 불규칙형	9
[도 6] Miguel Angel. 「Frangmento de off siencia」 . 2011	10
[도 7] 노주환. 「한강의 지혜」 . 2003	10
[도 8] 김상균. 「인공낙원(人工樂園)」 . 2006	11
[도 9] 구본석. 「City of Light and Dark」 . 2012	11
[도 10] Michelle Cook. 「Traces」 . 2010	11
[도 11] 안희정. 「Cube-Sewing Scape」 . 2010	12
[도 12] Peter root. 「Ephemicropolis」 . 2010	12
[도 13] 김동연. 「성스러운 도시 12」 . 2012	21
[도 14] Piet Mondrian. 「The Gray Tree」 . 1911	41
[도 15] Piet Mondrian. 「Composition 10 in Black and White」 . 1915	41
[도 16]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Grid 3:Lozenge Composition」 . 1918	51

[도 17]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Yellow, Blue and Red」 . 1930	51
[도 18] Piet Mondrian. 「Broadway Boogie Woogie」 . 1942-43	71
[도 19] 김봉태. 「춤추는 박스」 . 2006	81
[도 20] Imi Knoebel. 「AAAMOO」 . 2001	81
[도 21] 이기조. 「백자화병」 . 2007	81
[도 22] 이명아. 「인사동에 대한 천자의 기억」 . 2011	91
[도 23] Bodil MANZ. 「Composition in Yellow and Red」 . 2012	91
[도 24] 변인자. 「조각의 바다」 . 2009	91
[도 25] 상공 뷰	0
[도 26] 형태구성	2
[도 27] 색상구성	2
[도 28] 작품 제작과정	2
[도 29] Ø 0.5 실리콘 틀	2

작품목차

[작품 1] City of Lines-02	52
[작품 2] City of Lines-01	62
[작품 3] City of Lines-B02	72
[작품 4] City of Lines-B01	82
[작품 5] City of Lines-B03	92
[작품 6] City of Lines	03
전시장 전경A	31
전시장 전경B	32
전시장 전경C	32
전시장 전경D	32

I. 서 론

1. 연구 목적

예술은 작가의 삶과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다. 21세기는 과학의 발달 및 세계화의 확대에 의해 모든 문화가 혼용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삶의 모습 또한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내고 있다. 현대의 도시는 이러한 환경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비슷한 형태의 건물과 간판, 도로와 다리와 같은 인공물들로 에워싸여 있다.

인간의 욕구에 의해 건설되어진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문명의 집결체로서, 인간의 삶에 있어 절대적 요소 연결되어 진다. 도시의 형성과 발달은 외형적 모습 뿐 아니라 내면적 삶의 형태 또한 변화시키며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의 단절 및 개인주의와 같은 어두운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의 삶은 소외감과 답답함을 주는 동시에 삶의 질의 풍요 및 편안함을 주며 쾌락과 즐거움의 공간이 된다. 이러한 도시의 긍정적 측면은 인구의 집중화로 연결되며 거대 도시를 형성한다. 즉 도시는 인간의 삶의 수단인 동시에 주체가 되는 대상이며 어둠과 대조되는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조형에 있어 기본이 되는 요소는 점, 선, 면 그리고 색, 형태로서 도시는 이러한 조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사각구조의 형태와 도로망과 같은 인공적 요소들은 편의의 목적에 의해 수직, 수평의 격자형의 구조로 연결된다. 이러한 격자형의 구조는 가장 단순한 선의 결합에 의한 형태로 선의 간격의 차이와 같은 작은 변화에도 다양한 기하학 추상의 형태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외적 이미지 연구를 통해 얻은 수직, 수평의 격자구성과 도시와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적 이미지를 색으로 시각화 하여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직, 수평의 구조와 유사성을 띄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의 연구를 통해 선의 비례와 균형 및 색상구성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비례를 찾고 연구하여 도시의 함축적 이미지를 선과 면의 구성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시의 이미지 통한 연구로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양식을 바탕으로 한다. 도시는 오랜 기간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미술 분야의 소재로서 다양하게 애용되어 졌다. 도시는 일괄적인 형태의 구조물로 답답함을 주며 개인주의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도시는 삶은 질적 향상에서 오는 만족감과 화려함으로 인구를 집중화 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어두운면과 화려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외적 형태에서도 도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하학의 조형요소를 찾을 수 있다.

본 작품논문은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선과 면의 기하학의 요소로 나타내고자 하며, 도시의 인공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수직, 수평의 점토판의 결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형태에 있어 선의 결합을 통한 표현방법과 판을 쌓아 올려 입방체의 표면에 면과 선의 형태를 표출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판의 결합을 통한 도시의 표현은 유사한 형태의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양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색상에 있어 형태의 기본색인 무채색과 대비되는 원색을 사용하여 도시의 밝고, 어두운 내면의 다양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색의 추가와 원형 텍스처를 사용하여 이중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논문의 주제가 되는 도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시의 형태적 접근 및 도시의 내적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추출하여 도시를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작품과 유사성을 갖는 몬드리안에 관한 연구로 수직, 수평의 구성의 기하학 추상을 정립한 신조형주의 이해와 실제 도시를 바탕으로 한 몬드리안의 작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실적 대상의 추상화 표현방법을 작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작품제작에 있어 이론적 고찰의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세계를 수직, 수평의 선과 면의 비례로 정립한다. 사각 면의 비례는 면의 크기의 확장파 대비의 변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또한 단조로운 면과 대비되는 원형의 텍스처의 표현과 색상의 변화를 통해 도시가 지닌 양면성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형방법 및 기술적 문제점 극복을 통한 제작방법 및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도시에 관한 고찰

도시는 유사한 개념으로 도읍, 도회지, 시 등과 동일하게 사용되나 도시는 인구학적으로 일정 규모에 조밀한 인구밀도가 구성되어진 지역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도시는 단순히 인구의 집중지역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연구 분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인구의 집중 뿐 아닌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시와 대조되는 지역으로 촌락을 들 수 있으나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도시의 규모의 확장과 영역에 관한 규정이 다양해지며 도시와 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촌락에서도 도시와 같은 생활양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진정한 도시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관한 종합적인 견해를 볼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도시는 농촌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비 농민 집중 지역을 말하며, 보다 실제적으로 도시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의 1차 산업의 종사인구가 소수의 비율을 차지하며, 2차·3차 산업의 종사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일정한 공간에 다수의 인구가 밀집하여 사회·경제·정치 활동 등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1) 도시와 인간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카우퍼(J.M.Cowper)

도시는 오랜 기간 인간의 필요에 의해 구축되어온 인공물의 집합체로서 자본이 집결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주거와 문화, 예술의 위락활동 등 각종 행위가 복합적으로 가능한 공간이다. 또한 도시는 인구와 물자의 유동이 많으며, 많은 물질들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곳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첨단기기가 등장하면서 삶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도시생활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연이나 불확실성과는 거리가 먼 엄격한 시간 수칙이 요구된다.¹⁾

1) 트루먼 A. 핫슨 지음, 안재학 옮김, 「도시학 개론」, 도서출판 새날, 1997, p.21.

도시는 농민지역과 다르게 이웃, 공동체, 마을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고 직장생활, 소비생활, 등 서로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는 익명적 관계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복합주택, 고층빌딩 등 생활공간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없으며, 가족과 직장 이외에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 또한 찾기 어렵다. 이러한 관계들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독한 자기성찰의 시간은 도시인의 '개인주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도시의 속도를 따라 도시인의 욕망도 진화한다. 자본주의적 삶은 인간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진화, 성장하고 그것은 어느덧 미덕이 되어 버렸다.²⁾ 이러한 사회적 급 변화에서 오는 외로움에도 도시로 집중되는 까닭은 그보다 큰 '삶의 질'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감에서 시작한다. 자본주의 시대의 고도의 산업화 사회가 낳은 물질적 풍요는 이제 인간의 물질주의라는 테두리에 가둬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³⁾ '삶의 질'의 지표는 풍요성·안정성·보건성·능률성·쾌적성·도덕성 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여기서 풍요성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안정성이란 주민들이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을 말하며, 보건성이란 주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한다. 또 능률성이란 통근·통학 등 일상 생활상의 편리 뿐 아니라 생산·유통 등 경제적·사회적 활동상에 능률이 보장되게 교통·통신 수단의 확충, 각종 시설의 설치 등을 의미하고, 쾌적성이란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공생활에서의 도서관·공원·극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를 통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끝으로 도덕성이란 오늘날 생활인으로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인간성의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직업윤리·생활윤리 등의 준수를 의미한다.⁴⁾

도시의 인간의 삶을 어둡고 무미건조한 차가운 시선의 회색도시로 볼 수 있으나, 시선을 바꾸어 보면 욕구를 성취시키는 기회의 장이며 삶의 질을 충족으로부터의 행복을 제공한다. 이러한 천의 얼굴을 가진 도시는 치열함과 여유로움, 바쁨과 한가함과 같이 양면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며, 도시인들은 이러한 삶을 숙명적 관계로 볼 수 있다.

2) 하지현, 「도시 심리학」, 해냄출판사, 2009, p.4.

3) 박주연, 「도시와 인간의 불안한 공존」,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2006, p.10-11

4) 유종해,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p.407.

2) 도시의 이미지

도시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미지가 겹쳐서 하나의 공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각자의 환경에 따른 독자적인 것이지만 개체로 공적 이미지에 가깝다.⁵⁾ 근대 이전의 도시의 이미지는 힘과 위엄, 종교적 역할이 강조된 공동체의 표현이 강하였으나 르네상스에는 왕족과 귀족의 광장을 돋보이게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18,19세기 새로운 계획도시에는 중앙의 주요 기념물을 향해 뻗어있어 지배층과 민중이 소통하는 공간의 광장이 중심이 된다.⁶⁾ 근대 이후는 산업도시와 오염된 대기와 회색공장의 공업도시, 공동체가 용의한 도로망과 공공건물과 광장의 사회주의적 도시 이미지들이 형성한다.

도시의 이미지는 개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얻은 심상이미지(Mental Image)로서 주요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통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동차를 애용하는 사람은 보행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세밀하고 좁은 길에 대한 인식이 힘들고 주요 축이거나 교통망을 인식한다. 또한 근대에 과학의 발전은 도시의 이지를 확장시켜 도시의 지하에 건축된 철로의 경로 및 비행 물체를 통해 상공에서의 시야까지 이미지화 한다.

도시 설계사 케빈 린치(Kevin Lynch)에 의한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의 물리적 이미지와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사회적 의미, 기능, 역사 등)로 평가 하였는데 특히 도시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다섯 가지의 유형(통로: Paths, 단: Edges, 지구: Districts, 결절: Nodes, 랜드마크: Landmarks)으로 구분하였다.⁷⁾ 이러한 요소들을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에 이용하여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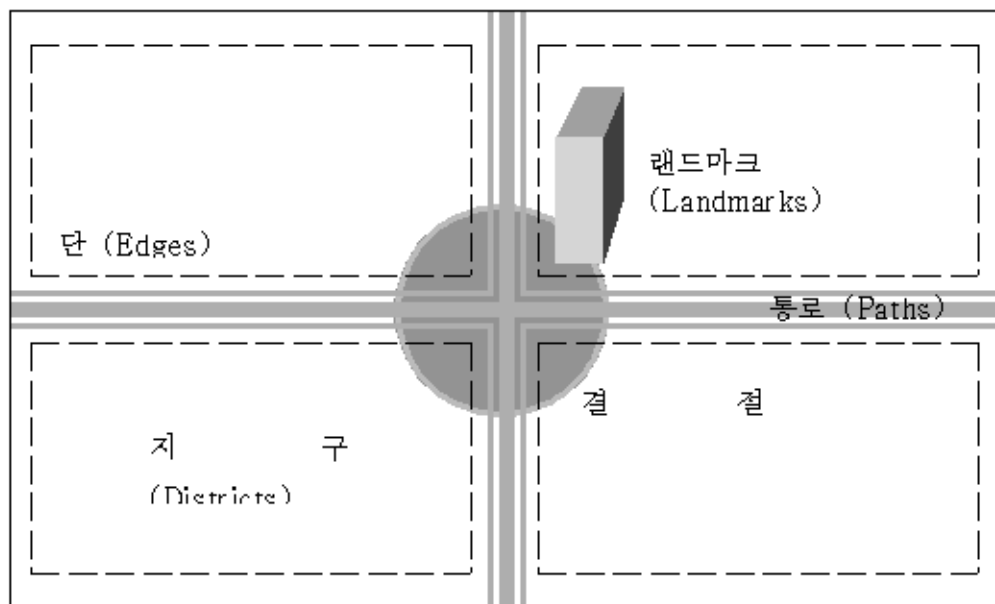
- 통로 (Paths) : 관찰자의 이동 경로를 뜻한다. 가로, 보도, 수송로, 운하,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이동을 하며 도시의 관찰하며 이는 도시의 지배적 요소가 된다.
- 단 (Edges) :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형요소를 뜻한다. 해안의 모서리, 벽, 강, 철도, 우거진 숲 등으로 '통로'만큼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나 중요한 구성요소로 막연한 영역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5) 권용우, 「도시의 이해」, 박영사, 2002, p.65.

6) 위의 책, p.73.

7) 위의 책, p.69.

- 지구 (Districts) : 인식이 가능한 독자적 특징의 구획을 뜻한다. 중심업무지역, 공업지역, 공원 등으로 내부의 특성이 비슷한 경우의 구획방법으로 도시는 대부분 이러한 구성을 갖는다.
- 결절 (Nodes) : 집합과 집중의 성격을 띄는 점으로 도시 내부의 중요한 지점을 뜻한다. 대부분 집합과 집중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집합성 결절'을 띄며, 이는 교통 교차점, 집합점 및 광장과 같이 물리적 성격이 융축되는 곳으로 도시의 핵(Core)라고도 한다.
- 랜드마크 (Landmarks) : 점에 해당하는 외부적 중요 지점을 뜻한다. 다른 요소 보다 돌출되어 관찰자가 도시의 여행에서 유용한 길잡이로 사용하며 '통로'의 교차점에 위치할 경우 보다 강한 이미지를 갖는다. 우뚝 솟은 탑, 건축구조물 등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특이성이 지닌 것이 이에 해당된다.



【도 1】 Kevin Lynch, 「도시의 물리적 형태 5가지 유형」

3) 도시의 형태

도시는 시대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한다. 초기 도시의 발생은 4대 문명⁸⁾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해당지역은 큰 강을 낀 북반구에 위치하고 대부분이 기후가 온화하고 기름진 토지의 영역으로 자원이 풍부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다. 점차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의 건설은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상징적인 기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경우 왕족의 계승으로 한곳에 머물러 도시를 형성한 반면 이집트의 경우 새로운 왕의 즉위는 곳 새로운 도시의 형성이 되었다.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들은 자신의 사후 거처인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거주 구역인 카혼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쿨데삭(Cul-De-Sac)이라 부른다. 쿨데삭은 막다른 골목을 말하며 통과 교통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한 도로로서 이는 노동자의 탈주를 방지한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고대 이집트의 집단 주거의 터로 귀중한 예 볼 수 있다. 초기 도시의 형성은 왕의 안전과 주거로서의 개념이 크다 볼 수 있다. 중세 도시의 큰 특징은 성곽도시로서 방어 효율을 중시하였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성의 내부 공간의 부족화와 복잡하고 좁은 길의 형성으로 인하여 접근성 어려웠다는 점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인구가 성의 외곽에 퍼져 촌락을 이루어져 도시가 형성되기 어려움을 야기했다. 중세의 도시는 고대와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이후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후 근대에 이르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성벽은 철거되었으며, 도시 성장 계획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종교적 사유나 국방의 목적을 기본원리로 대체되었다.

문명사적으로 볼 때 세계의 도시는 신전의 도시로 시작되어 왕권의 도시, 봉건 영주와 사원의 도시, 상공인들의 도시로 이어오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업도시·관리도시로 기능과 구실이 변화해 왔다.⁹⁾

도시의 형태는 도시의 윤곽을 말하며 도시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도시가 입지하게 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정치적 결정 및 지형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시 내부의 형태는 주로 가로망에 따라 결정된다. 가로는 시가지 구성의 주축일 뿐만 아니라 교통 형식을 좌우하며, 장식적 효과, 관습, 지형에의 순응 등에 따르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결합하여 한도시를 이루기도 한다.¹⁰⁾ 도시는 형태에 따라 규칙형, 불규칙형 두 가지의 형태와 혼합된 형태의

8)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을 말한다.

9) 한민족문화대백과. 도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3.12.1

10) 권용우, 앞의 책, p.61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 규칙형(Regular Pattern)

계획도시의 형태로서 직교(격자)형, 방사형, 직교방사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직교(격자)형의 형태는 확실적이며 계획의 인식이 쉽고 도시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의 격자형도시는 고대 히포다무스(Hippodamus)의 형성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근대이후 대표적인 도시로서는 미국 뉴욕(New York),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등이 있고, 우리나라는 진주, 울산, 창원 등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 [도 2]

규칙형 방사형의 형태는 태양의 빛과 같이 뻗어나는 형태로서 장점으로 미관이 아름답고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구조를 갖는다. 대표적 도시로서는 독일의 칼스루에(Karlsruhe)지역으로 성을 중심으로 하는 32개의 방사형으로 구성되어 도심 어디에서도 성의 탑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프랑스 파리(Paris) 또한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도로가 동심원 형태로 뻗어 나가는 방사형의 도시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도시로는 진해시가 있으며, 부산은 2013년도를 기점으로 10년간 방사형의 도시철도망을 구축 계획하고 있다. [도 3]

직교방사형은 위에서 설명되어진 두 가지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가미된 형태로서 도시 미관과 교통의 효율성도 높고 계획건설의 확장이 용이하며, 대표도시로는 미국 워싱턴(Washington)과 우리나라 공업도시인 창원과 안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 4]

- 불규칙형 (Irregular Pattern) [도 5]

일반 도시의 기본적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주요도시인 서울, 수원, 인천 또한 이에 해당된다. 도시의 성장과 함께 일정한 방향성과 패턴이 없이 형성되어진 도시로서 성곽 또는 지형에 의한 요인으로 불규칙하게 형성된다.

- 혼합형(Mixed 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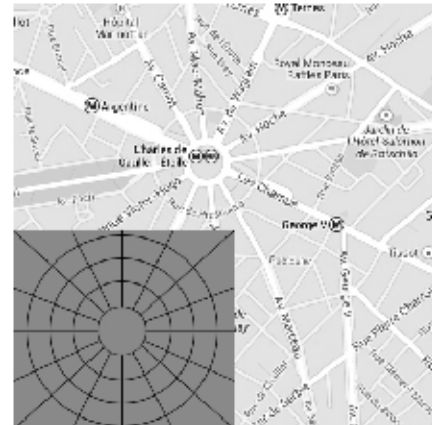
규칙형과 불규칙형이 둘이상 혼합된 형태이다. 실제로 한가지 형태만을 갖는 도시란 거의 없다. 원래 불규칙형에서 시작되어 후에 다른 형태가 부가되거나 변형되면서 혼합형이 된다.¹¹⁾

11) 권용우, (2002) 「도시의 이해」, 박영사 p.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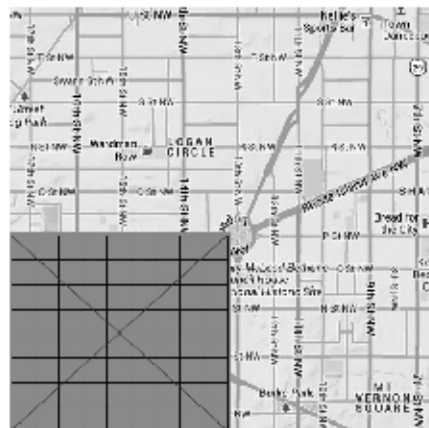
도시의 형태는 역사와 함께 다양한 발전을 이뤄 왔다. 형태의 구성은 단순함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며, 이러한 도시가 나타내는 기하학적인 구조는 도시인들의 생활과 심성을 대변하는 요소와 관련지을 수 있다. 현대의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격자형의 도시 구조는 현 시대의 삶을 대변하듯 일정한 틀에 갇혀 빠르고, 정확함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도 2] 규칙형: 직교(격자)형



[도 3] 규칙형: 방사형



[도 4] 규칙형: 직교방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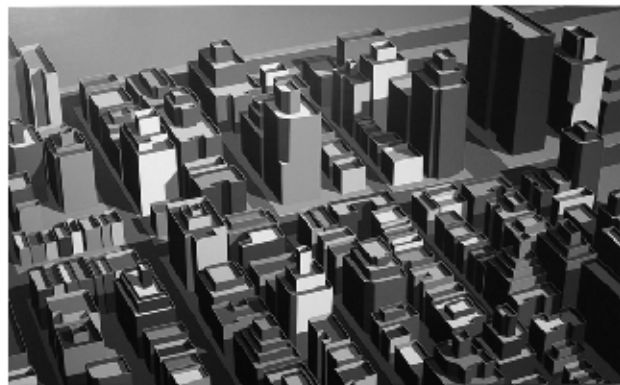


[도 5] 불규칙형

4) 작품사례

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작품은 미술 전반에서 나타난다.

미구엘 앙헬(Miguel Angel Iglesias Fernández)의 작품은 도시의 모습을 사각형의 색 면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색채의 조합을 통해 이국적인 느낌을 나타낸다. 또한 조형적 형태에 있어도 건물의 높낮이를 이용하여 시각적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그림자의 적절한 사용은 평면작품에 입체감을 나타낸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인간의 공간인 도시를 표현함에 있어 사람, 차와 같은 동적인 것은 배제하여 매우 정적이고 고요하게 나타낸다. 색 면의 작품은 붓 터치가 배제되어 인위적인 느낌을 나타내며 이는 도시의 인공미적인 계획되어진 이미지의 극대화 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작가의 절제된 행위가 잘 나타난다. [도 6]



[도 6] Miguel Angel Iglesias Fernández.
「Frangmento de off siencia」, 2011

노주환의 도시는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제인 금속활자를 모아 만들어낸 조형물로 그의 이러한 시도는 사라져가는 문화적 유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섬세함과 정확함, 그리고 인내력으로 이룩해낸 활자는 인쇄문화의 압축 본이자 텍스트로서 보편적인 언어를 표현한다.

[도 7]의 작품은 한강 주변의 서울 지리를 모사한 작품이다. 노주환의 지도는 실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새로운 구상이 아닌 지도의 축소모델에 가까운 형식이다. 작가는 사람들에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대도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관찰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도 7] 노주환.
「한강의 지혜」, 2003

김상균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건물의 형상은 서울의 건물을 수집한 결과로서, 똑 같아 보이던 건물의 부속물(간판)을 떼어내어 건물의 순수한 형태의 다양함을 컨테이너 형식의 블록으로 쌓아 올려 표현하였다. 하지만 작품 [도 8]의 시선 어디에서도 한국적인 형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근대화로 인한 서양문명 무분별한 차용으로 인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원본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애도와 현대 도시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작품은 시멘트 캐스팅을 통해 기계적인 외양을 띄며 이는 생산성을 위한 동질화의 회색도시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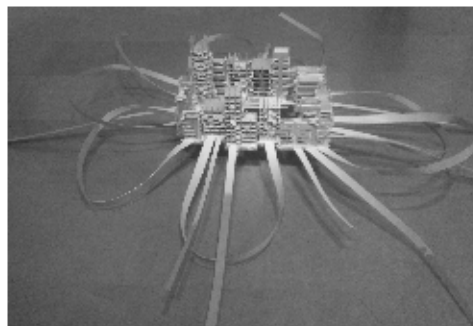
[도 8] 김상균.
「인공낙원(人工樂園)」, 2006

구본석 작가는 도시의 야경을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상징하는 기호로 인식하고 LED 라이트박스과 거울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도시의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과 형형색색의 네온광고, 교각을 장식하는 조명, 자동차의 유동하는 불빛 등이 상호교차하면서 밤의 도시는 화려한 빛으로 나타낸다. 작가는 도시의 야경을 빛의 픽셀이 모인 집합체로 보았으며 내면의 공간을 자본주의적 꿈으로 가득한 허상적인 공간으로 표현한다. [도 9]



[도 9] 구본석.
「City of Light and Dark」, 2012

김동연의 작품은 도시의 구조나 조형적 특성에 집중하기보다 그 내면에 잠재한 삶의 흔적들에 주목해 왔다. [도 10]의 작품은 전쟁과 자연재해에 의해 파괴된 도시에 대한 성찰로서, 폐허인지 건설 중인지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도시의 형상을 통해 현대사회의 아이러니한 현실을 반영한다.



[도 10] 김동연.
「성스러운 도시 12」, 2012

안희정 작가의 큐브 작품[도 11]은 산업화된 도시의 표상인 아파트처럼 형태 혹은 컴퓨터의 픽셀과 같이 규격화된 사각을 통해 은유적으로 규격화되어진 삶의 고립을 내포하며, 작품에 나타나는 문을 통해 소통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큐브는 부드러운 천의 표면과 포근한 솜으로 채워진 삶의 대한 답답함을 반어적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기를 나타낸다.



[도 11] 안희정.
「Cube-Sewing Scape」, 2010

피터 루트(Peter Root)의 작품들은 다양한 재료(감자, 비누조각 등)로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다. [도 12]의 작품은 6x3m 대리석 바닥 위에 십 만개의 스테이플러(Stapler) 철심을 세워 구축한 도시를 구축하며, 사용되어진 철심의 최대 높이는 12cm로 길이 조절을 통해 건물의 높낮이 표현한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플러를 세워 만든 도시로 하나가 쓰러지면 연속적 붕괴가 진행되는 도미노처럼 불안함과 긴장감을 전달한다. 이는 자연적 힘에 의해 붕괴되는 도시의 종말에 대한 의미가 포함한다.



[도 12] Peter Root.
「Ephemicropolis」, 2010

미셸 쿡의 작품 [도 13]은 영국의 서부의 항구 브리스톨에 버려진 건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이는 도시의 건물의 흔적들을 건물구조의 도자 조형과 빛을 통해 표현하였으며 사진 작품에서 강한 그림자 사용을 산업 도시의 건물모습은 연상하게 한다.



[도 13] Michelle Cook.
「Traces」, 2010

2. 몬드리안에 대한 고찰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와 함께 추상미술의 선구자이다. 본 연구에 있어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추상의 발생과 개념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

추상미술은 경제와 과학의 발전으로 자연스러운 변화와를 함께 시작되어 졌다. 이전의 미술은 화가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낭만주의와 현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사실주의 화풍을 나타냈으나, 이는 사진기의 발달로 인해 쇠퇴되며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시각의 탐구로의 전환으로 여러 이즘(ism)의 발생시켰다.

19세기 중반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빛에 의한 형태와 색채의 변화를 표현하려는 인상주의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모를 맞는다.¹²⁾ 인상주의 작가 클로드 모네의 화풍은 빛에 따라 변화하는 물체의 일시적 외양을 포착을 위해 연속적으로 그림은 그리는 것으로 작품 <수련>은 색채 위주로 형태가 뭉개져 표현되며 추상의 형상을 나타낸다. 후기 인상주의 폴 세잔(Paul Cezanne)의 사물의 본질적 구조와 형상에 주목하여 자연은 모든 형태를 구, 원뿔, 원기둥으로 해석 하였으며 이는 입체파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¹³⁾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¹⁴⁾의 다시점에 의한 형태의 해체와 결합의 입체파 운동으로 전개 되었으며, 미래주는 급속한 변혁과 속도를 해프닝적 행위를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표현은 추상미술의 선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나 완전한 추상화라고 볼 수 없다.

본격적인 추상주의 미술은 1910년 전후로 시작되며, 추상미술의 공통적으로 자연의 모방으로서의 미술을 탈피하기 위한 '추상화하다(to abstract)'라는 말에는 '요약하다' 혹은 '응축시키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물을 요약, 응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추상의 경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¹⁵⁾ 추상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와 같은 최소한의 형태와 색채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는 방향과 칸딘스키의 작품과 같은 직관의 감정에 의한 표현으로 다양한 색채와 선을 통한 표현방법으로 나뉜다. 추상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철학적이며 개념적으로 색채와 형태를 자연이 아닌 화가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는 본질에 있어 독립적이고 순수한 조형요소이다.

12) 유재길,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1996, p.23.

13) 조르주 브라크 : 피카소 함께 입체파(큐비즘)를 창시하고 발전시켰다. 그는 분석적 입체주의 시기에 최초로 그림 속에 알파벳과 숫자를 그려 넣었고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에는 오려낸 종이 조각들을 캔버스에 붙이는 '파피에 콜레' 기법을 처음 시도했다

14) 파블로 피카소 :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시한 20세기 최고의 거장.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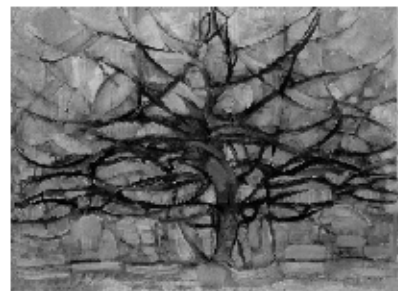
15) 김광우, 「칸딘스키와 클레의 추상미술」, 미술문화, 2007, p.14.

1) 몬드리안의 작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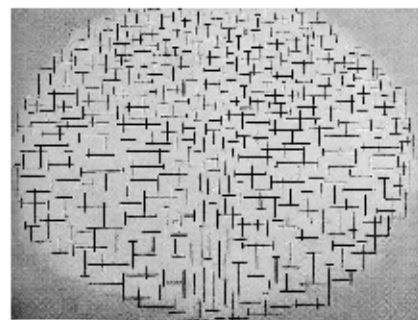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은 기하학적 추상화의 선구자로 어려서부터 헤이그¹⁶⁾에 속한 삼촌 프리그 몬드리안과 아마추어 화가인 아버지에게 회화 수업과 신지학¹⁷⁾의 영향을 받았으며, 1892년부터 1897년까지 암스테르담의 미술아카데미에서 풍경화(고향의 교회탑 전경, 윈테르스웨이크의 작은 마을)에 몰두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작품들은 대중에 인정받을 만한 기회를 갖지 못 하게 되었고 상황은 악화되어, 그는 정치적 충돌까지 가져왔다. 이후 브라반트의 시골에 머물며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으며, 대중이 원하는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며 작가로의 열망과 의지를 다잡았다. 불안한 삶을 뒤로하고 선택한 프랑스 파리로의 이주는 몬드리안에 있어 젊은 시절의 정리이며 새로운 시작으로,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떼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피에트 몬드리안으로 칭하게 된다.

그의 초기의 작품은 인상주의와 같은 자연주의 화풍에서 시작하여 탈인상주의와 야수파, 입체를 거치면서 추상에 이르게 된다.¹⁸⁾ 특히 입체파 작업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아 색과 형태에 있어 그들의 형식을 반영하여 색상은 (회색, 갈색, 검정)으로 한정지어 드로잉의 중요성 및 자연주의 탈피와 평면적 환영으로의 전환 하였다. <나무> 연작 [도 14]은 곡선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 자연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으나 순수 형태와 색에 의한 구성으로 조형적 구성에 대한 탐구를 드러낸다. 이후 구체적 사물에 형태를 완전히 배제하고 수직 수평의 그물의 선들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순수 조형적(plastic) 실재(reality)를 강조한다. [도 15]

파리를 떠나 네덜란드로 돌아온 몬드리안은 입체주의로 부터 벗어나 엄격한 이론 정리를 통해 추상회화로 의 화풍이 거의 확립된 시기이다. 1917년 반 도스부르크(Theo van Doesburg)가 창간한 미술잡지 데스틸



[도 14] Piet Mondrian.
「The Gray Tree」, 1911



[도 15] Piet Mondrian.
「Composition 10 in Black and White」, 1915

16) 프랑스 사실주의와 바르비종파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로, 야외 작업을 중시하며, 어두운 색을 주로 사용하여 회색파(The Gray School)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진다.

17) 신지학: 신비적인 직관에 의해 신과 합일하는 것에서 그 본질을 인식하려고 하는 종교적 신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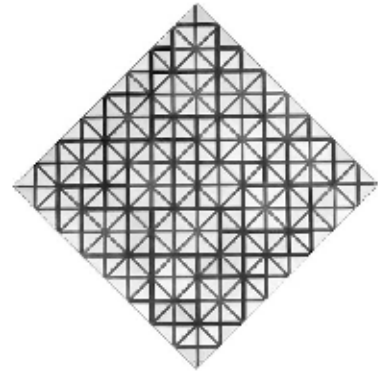
18) 유재길,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1996, p.36.

(De Stijl)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기하학적 추상미술 그룹은 큐비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전히 잔존하는 대상을 완전한 비대상화 하였다. 또한 화가의 개인적 감정이나 개성이 감지되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일반적인 조형요소로서 직선과 면의 형태, 3원색과 3배색을 사용한 화면과 입체로 새로운 환경, 즉 추상적 환경을 창조하며, <회화에 대한 《새로운 조형》>으로 주제가 된 동명의 잡지 데스틸지에 연재하였다. 이후 그는 작품에 건축적 특징인 정적인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그리드 3의 구성: 마름모 구성> [도 16]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사각망의 조직과 수직 수평의 구조는 매우 질서 정연한 형태를 보이며 이러한 형태는 <그리드> 연작은 자연의 외형을 환기시키는 모든 대상을 제거하고 수평 선과 수직 선의 만남이 드는 사각형의 형태와 색채의 상호 반응을 연구하여 <구성> 시리즈로 변화하였으며, 직선과 직각, 수직과 수평 선의 사용과 3원색(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3가지 무채색(흰색, 검정색, 회색)으로 원칙으로 삼는 신조형의 양식을 확립한다. [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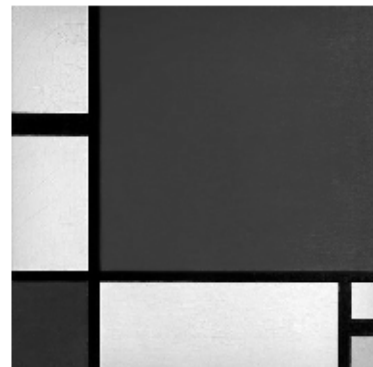
파리의 입체주의자들은 항상 과거의 회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대적인 양식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몬드리안의 색채 풍부한 그리드 회화는 완전히 추상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입체주의 회화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다. 19)

미국으로의 이주 후 몬드리안은 마지막 변화를 맞는다. 이시기의 작품에서는 자유와 활기가 넘치는 뉴욕에서의 영감을 통해 이전 작품에서의 검은 선을 탈피하고 작은 네모꼴의 연속무늬로 바뀌었다. 1943년 <빅토리 부기 우기(Victory Boogie Woogie)>는 그의 죽음으로 미완성작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기하학적 추상의 쇠퇴를 의미하나, 몬드리안이 추구한 신조형주의는 오늘날 까지 회화, 조각은 물론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폭 넓은 영향을 나타낸다.



[도 16]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Grid 3: Lozenge Composition」. 1918



[도 17]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Yellow, Blue and Red」. 1930

19) 수장네 다이허 지음, 주은정 옮김, 「피트 몬드리안」, 마로니에 북스, 2007, p.54

2) 신조형주의 (Neo-Plasticism)의 개념

신조형주의는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파리에서 입체파 그룹으로 활동하던 몬드리안이 네덜란드로 돌아와 반 데스 버그와 벤 데르 레크(Van Der Leek)를 만나 '예술의 외형의 축소'란 공통적 고민을 '양식'이라는 뜻의 데스틸(De stijl)의 결성을 통해 이론적으로 확립하였다. 이와 동명의 잡지 데스틸지를 통해 신조형주의를 발전 정립하였으며, 이는 몬드리안의 조형 세계를 뜻하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데스틸에서 신조형주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조형(De Nieuwe Beelding)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을 다시 설명한 대화식의 <새로운 조형에 관한 대화>에서 처음 게재 되었다.

신조형주의는 데스틸의 기본 법칙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지켰으며, 인상주의 순간적인 빛에 의한 색의 표현과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점묘기법을 바탕으로 순수하고 본질적인 색채의 탐구와 프리즘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신지학자 쉐 마커(Schoenmacker)의 색채론 "세 가지 기본적인 색채란 노랑 파랑 빨강이다. 이것들은 유일하게 실존하는 색채이다. 노랑은 빛의 움직임이고, 파랑은 노랑과 대하는 색채이다. (...) 색에 있어서 파랑은 창공이고, 선이며, 수평성을 지닌다. 빨강은 노랑 및 파랑과 짝을 이룬다. (...) 노랑은 빛을 발하고, 파랑은 뒤로 후퇴하고, 빨강은 위로 떠오른다"²⁰⁾고 서술하였으며, 이는 몬드리안의 형식과 철학적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작품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신조형주의>는 가장 외적인 것을 추상하여 가장 내적인 것을 결정(결정화)하는데 따라 회화에 대한 새로운 현실성을 찾는다. <신조형주의>는 그것을 유채색과 무채색의 구형평면의 구성에 따라 확립하고, 이 구형평면이 한정된 형태로 바뀐 것이다. 대상이나 존재는 위대한 영원의 법칙을 막연하게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으나 이 법칙은 이와 같은 보편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엄밀히 표현할 수가 있다. <신조형주의>는 위치의 불변적인 관계, 즉 직교의 관계에 따라 이들의 법칙을 이 불변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 때문에 변화 되는 것을 즉 크기(치수)의 관계, 색채의 관계, 유채색과 무채색(소리와 소음)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것(자연)은 색채의 평면과 리듬에 의해 표시되는데 대해서 불변적인 것(정신)은 직선과 무채색(백, 흑, 회색)의 평면에 따라 표현되어 졌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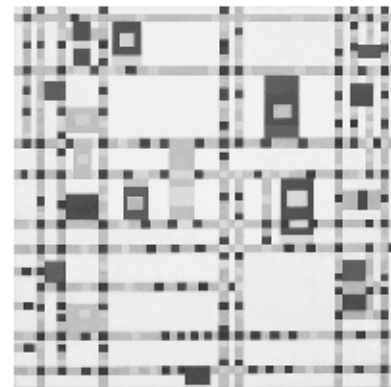
20) 김승호, 현대미술론, http://211.43.206.86/?lectureidx=shoKim01_0302_06, 2011.11.02

21) Piet Mondrian, 「바우하우스총서, 5 새로운 조형」, 도서출판 과학기술, 1995, p.32.

3)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에 관한 고찰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도 18]는 몬드리안의 마지막 완성작으로서 종전의 작품에서와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넓은 평면과 검은 선을 이용한 엄격한 무늬에서 벗어나 검은 선은 색 띠로 바꾸었고, 색 띠는 연속적인 흐름을 작은 네모꼴의 연속무늬로 바뀌었다.

몬드리안은 2차 대전 중 뉴욕으로 망명 후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리드미컬한 움직임과 그의 <신조형주의> 개념과 맞아 떨어지는 기하학적 직선들의 교차로 이루어진 도시에 매료되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 맨해튼 남단의 배터리공원 북동단에서 시작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된 거리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북으로 통하는 대로이며 타임스스퀘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에는 뮤지컬을 비롯한 쇼 극장들이 즐비한 예술의 거리로 춤과 리듬에 흥미를 갖고 있던 몬드리안에게 예술적 소재가 되었으며 그는 뉴욕의 도시적 이미지와 맞는 자유롭고 새로운 멜로디 재즈(Jazz)²²⁾에 매료되었다.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재즈 ‘부기우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부기우기’는 8박자의 다이내믹하고 리드미컬한 피아노 연주곡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는 몬드리안이 추구해 왔던 단일 평면과 결별하고 보다 맞는 자유 강조된 색띠로 변화된 구성으로 뉴욕시의 야경과 음악적 리듬을 포함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즉 는 ·는직·삼원색이라는 예 홍 조형 요소를 변화된 간직하면서도 더욱 복잡하고 경쾌한 리듬과 구조의 풍부앨적 드러내고 있다. 으로 색상의 긴 띠 사이사이구성되미컬한 , 그리고 흰 조각들을 조합하여 끈임 없는 동적인 리듬감적 리듬내며 색 띠 사이에 색 면을 배치하여 동적요소와 정적요소의 조화를 이룬다. 또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구도에 있어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듯 완전히 비중심화 함으로서 시각적 열림을 그림 전체에 창출하여 관찰자의 눈이 원하도록 움직이게 하여 특색이 있는 부분들을 포착하게 해준다.²³⁾ 몬드리안의 뉴욕시기의 작품들은 구체적인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작품 제목들 또한 구체적 명칭을 사용하여 더 이상 단순한 추상이 아닌 사물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도 18] Piet Mondrian.
「Broadway Boogie
Woogie」, 19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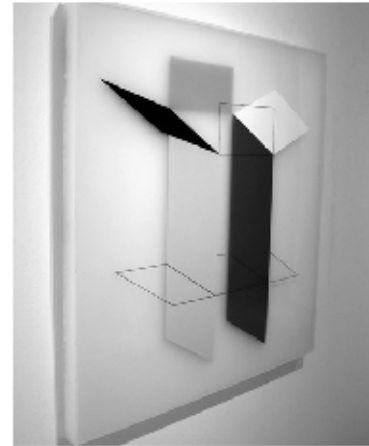
22) 19세기에 미국 흑인의 민속음악과 백인의 유럽 음악의 결합되어진 것으로, 오프 비트의 리듬에서 나온 스윙 감, 임프로비제이션(즉흥연주)에 나타나는 창조성과 활력과 연주자의 사운드와 프레이징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것들이 유럽음악·클래식음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3) 뉴욕현대미술관(MOMA), <http://www.moma.org/explore/multimedia/audios/9/2845>, 2012.10.10.

4) 작품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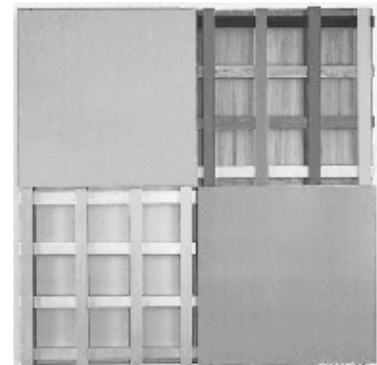
수직, 수평의 사각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회화, 조각, 도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봉태의 작품은 평면과 입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무거움보다 가볍고 경쾌한 유머러스함을 보여 주며, [도 19]의 작품 또한 여러 형태의 사각형(긴 사각형, 직각사각형, 변형사각형)과 검정, 노랑, 파랑, 흰색, 오렌지색이 어우러져 박스를 울퉁감이 느껴지는 3차원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는 작업을 통해 기능을 다하면 버려지는 무용지물의 박스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명을 불어 넣어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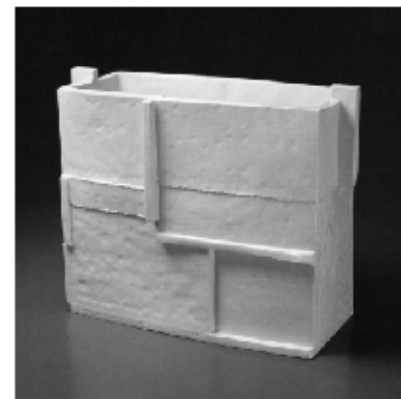
[도 19] 김봉태.
「숨추는 박스」, 2006

이미 크너벨(Imi Knoebel) 작품은 알루미늄 판의 딱딱함 위에 풍부하고 화려한 색채의 힘찬 붓 터치가 더해져 표현하였다. 이는 차가움과 따스함, 진중함과 가벼움을 주며 시각적 즐거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나타낸다. 그의 작품은 회화가 놓여지는 물리적 공간과 환경과 캔버스의 '틀'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되어 수직, 수평의 구조와 공간의 추상을 통해 표현된다. [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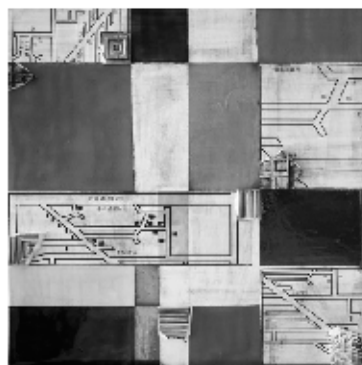
[도 20] Imi Knoebel
「AAAMOO」, 2001

이기조의 백자 작품은 도자의 본질적 쓰임에서 오는 공간적 기능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현대 미술의 원리와 결합하여 재해석한 작품으로 [도 21]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흙 판의 결합과정의 노출과 표면의 손에 의한 텍스처는 성형과정의 흔적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의 물질과 신체의 교감이며 행위의 기록을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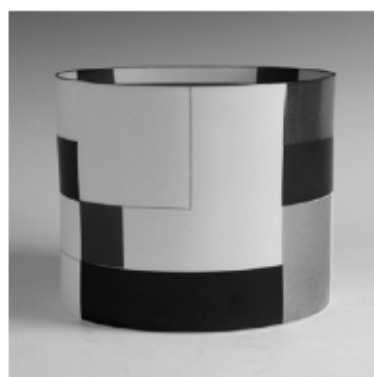
[도 21] 이기조.
「백자화병」, 2007

이명아의 작품 [도 22]은 작품명과 구성에서 사용되어진 지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대상을 드러낸다. 인사동은 매 주 새로운 전시가 이루어지는 생기가 넘치는 장소이며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공존한다. 작가는 지도와 흐릿한 색상의 사각형의 면의 분할들 통해 새로움과 즐거움의 기억의 공간을 지도 찾기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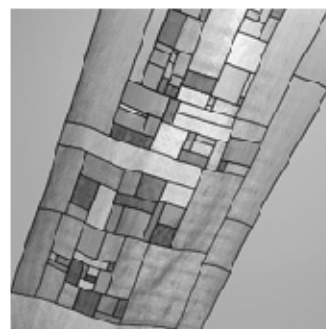
[도 22] 이명아.
「인사동에 대한 천자의 기억」, 2011

보딜 만츠(Bodil MANZ,)의 작품은 심플한 원통형의 도자 용기로 형태의 내부와 외부의 표면에 건축적 기하학 공간 구성을 드로잉을 통해 나타낸다. 그의 작품은 고온소성으로 얇게 제작되어 빛을 받았을 때 투명한 도자 용기가 내부와 외부의 드로잉을 겹쳐 조형적 아름다움을 강하게 나타낸다. [도 23]은 노랑과 빨강색의 면과 검정색의 면과 선을 통해 조화롭게 구성되어 표현하였다.



[도 23] Bodil MANZ.
「Composition in Yellow and Red」, 2012

해인 변인자의 작품 [도 24]은 대형 조각보를 현대적 미의 구성을 통해 표현하였다. 조각보는 몬드리안의 회화보다 10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되어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미적 구성미를 나타낸다. 조각보는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정형화되지 않은 색채감과 구성미로 독특한 예술성을 나타낸다.



[도 24] 변인자.
「조각의 바다」, 2009

III.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계획

본 연구는 도시의 이미지를 기하학 형태로 재구성하고 조형언어로 표현함에 있으며,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공적 이미지는 사각의 면과 수직, 수평선의 구성을 통해 표현하며, 도시의 삶에서 느껴지는 내면적 심경을 색상을 통해 조형으로 시각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도시는 현대 삶에 있어서 필연적 장소로 길과 건물과 같은 인공물들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이다. 현대 도시는 서양문명에 유입으로 건설되어진 구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직선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수직, 수평선은 급 변화하는 도시와 어울리는 속도감과 효율성에 나타내며 각박한 느낌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화려한 조명은 도시의 생동감과 활기를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물질적 여유와 같은 긍정적 에너지 또한 내포한다.

본 작품은 도시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 길과 건물을 상공에서 관찰할 때[도 25] 강조되어 나타나는 선과 면으로 한정지어 표현 하였다. 본 작품은 평면의 작업에서 불규칙한 수직, 수평선들의 결합에서 시작하여 입체화를 통해 동일한 수평선 위에 세워진 수직선의 간격의 좁고, 넓음과 면의 위치의 변화를 통해 조형적 비례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한다. 관의 결합에서 하단과 상단의 수직선의 위치가 항상 엇갈리도록 하며, 이는 도시의 상징물인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쌓아 올리는 방법과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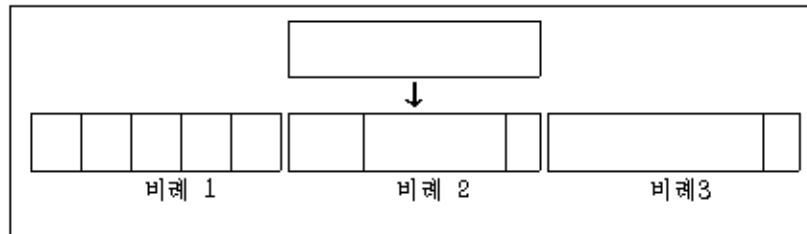


[도 25] 상공 뷰

비례의 아름다움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수학적 논리가 아닌 경험을 통해 터득된다. <표 1>의 비례1은 같은 사이즈의 조밀한 면적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안정적으로 보이나 답답하고 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비례2의 경우 서로 다른 3가지의 면이 어느 한 쪽에 압도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비례3은 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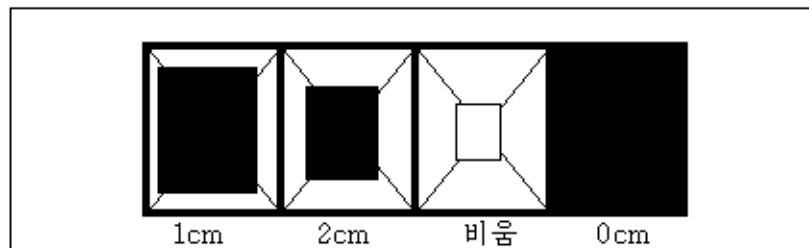
면이 매우 넓어 시원하게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면이 위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비례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표 1> 면의 비례



<표 2>은 면의 깊이의 차이로 수직면과 수평이 직각을 이루는 평면의 경우 외각의 선이 사라져 단조로움을 나타내고 답답함을 보여준다. 1cm와 2cm와 같이 안으로 들여 놓은 면의 경우 외각의 선이 도드라져 표현되며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사각형 틀 안에 면을 형성하지 않고 공간을 비워 표현하면 주변과 대비되어 답답함이 줄어들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면의 깊이를 통해 동적 변화를 주고자 한다.

<표 2> 면의 깊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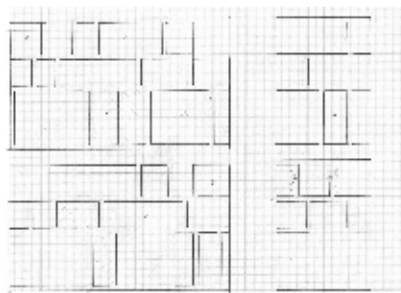
색상의 선택에 있어 몬드리안과 같은 순수한 3원색을 통해 표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복잡하고 리드미컬한 도시의 이미지를 담기 위해 자연색인 초록색을 추가하여 풍부한 도시의 이미지를 색감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몬드리안만의 작품에서와 같이 작품에 정의된 모든 색상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작품마다 색상을 제한하여 표현한다. 이는 여러 색상이 혼용되어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작품의 일부표면에 어린이 장난감 블록 레고(LEGO)²⁴⁾에서 차용한 원형의 텍스처 장식으로 표현된다. 이는 도시의 이미지 구축과정에서 점토판을 쌓아 올려 성형하는 방법과 레고의 특성인 블록을 쌓는 행위를 통해 건물과 도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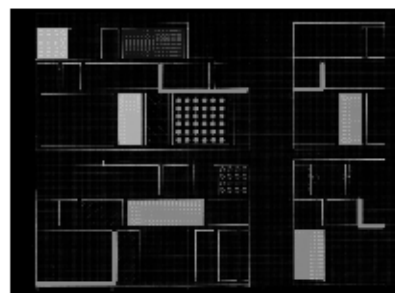
24) 어린이 장난감 블록으로, 덴마크어 LEGO DT('재미있게 놀다'라는 뜻)을 줄여 레고(LEGO)로 불리게 됨.

건설하는 과정과 유사성을 지니며, 형형색색의 레고 블록이 도시의 다양한 이미지를 대변하는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몬드리안의 작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3차원의 도시이미지를 2차원으로 재구성하는데 그쳤으나, 본 작품은 도시를 2차원으로 환원 뒤 다시 3차원의 입체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구성에서의 면의 분할 및 색상의 조화를 사전에 드로잉을 통해 계획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어 표현하였다. 이는 작품 제작과정에서 면과 선의 구성 및 색상 배치를 가상으로 조합하여 표현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도 26], [도 27]



[도 26] 형태구성



[도 27] 색상구성

도시의 이미지 통한 작품제작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 수평의 선의 조합과 면의 비례를 통해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면의 경우 불규칙한 선과 면의 구성을 선택하였으며, 입체의 경우 수직, 수평의 사각 점토판을 조합하여 층을 쌓아 올려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둘째, 색상 구성에서 몬드리안의 삼원색(빨강, 노랑, 파랑)과 자연의 색 초록을 사용하여 도시의 리드미컬한 다양성을 색으로 표현한다.

셋째, 단조로운 사각 면에 LEGO 블록의 텍스처를 사용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형태 구축에서 나타나는 쌓아올려 지는 과정을 연상하도록 한다.

넷째, 본 작품은 각각의 개체가 도시의 이미지를 조형언어로 표현하였으나, 개체의 군집 또한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형상화 하여 나타낸다. 이에 작품의 통일성을 위해 기본 색상은 건조한 검정색을 사용하였으며, 도시의 인공미를 나타내는 실버 색상의 개체 전반에 표현하여 계획하였다

2. 제작과정

1)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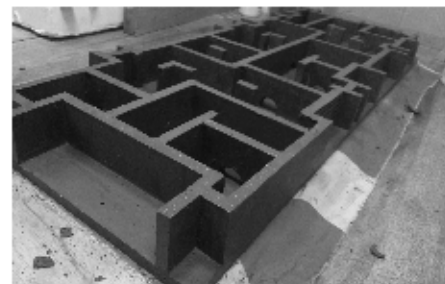
사모트 알갱이를 함유하여 타 소지에 비해 수축률이 낮고 점토판 성형에 있어 휘어짐과 균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합토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크기가 큰 조형작업에 매우 적합한 소지로 사용된다. 또한 3차 소성시의 유약질의 선명한 발색을 위해 백색도가 높은 조합토를 사용하였다.

2) 성형

점토를 사각형의 덩어리로 만든 후 밀어내어 성형하였으며, 판 성형에 있어 양쪽에 높이 1cm와 0.5cm의 높이가 같은 두 개의 아크릴 막대를 이용하여 점토판을 일정한 두께로 밀어 내도록 하였다. 이때 반듯이 점토판을 사방에서 밀어 입자의 밀도를 균일하게 하여 뒤틀림을 최소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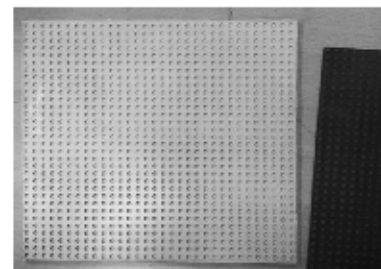
일정한 두께로 밀어진 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는 조형물의 기본이 되는 판으로 건조 과정 (본 작업에서의 반 건조 상태는 약 10 x 10cm의 사각 판이 휘어지지 않고 세워 지는 정도를 말한다.)후 성형에 시작한다. 두 번째 판은 \varnothing 0.5 원형이 뿔뿔하게 점토판 안으로 새겨진 텍스처 판으로, 이는 판을 밀어낸 후 바로 \varnothing 0.5의 원형의 막대 도구를 사용하여 판을 눌러 제작하였다.

입체의 경우 점토판의 결합은 수평의 판 위에 수직의 사각 판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수직 축이 휘어지는 것에 유의하여 외형을 구축한다. 또한 내부에도 아치형의 판을 세워 하중을 견뎌내도록 하였으며, 이는 건축학에서의 건물을 구축과정과 유사성을 나타낸다.[도 28] 도벽 작품의 경우도



[도 28] 작품 제작과정

같은 방식으로 성형하나 건조과정에 자석과 철판을 이용하여 눌러주어 판이 휘는 것을 방지한다. 성형과정이 마무리 되면 작은 원형의 붙여 텍스처를 표현하였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텍스처는 레고(LEGO)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varnothing 0.5, \varnothing 0.8의 실리콘 틀을 제작[도 29] 하여 진행



[도 29] \varnothing 0.5 실리콘 틀

하였다. 완성된 실리콘 틀 안에 흙을 밀어 넣어 반 건조 후 작은 원형을 탈영 하여 원형을 하나씩 판에 붙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탈영 방법은 단시간에 많은 점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석고 몰드를 이용 시 발생하는 맞물림을 대체할 수 있다.

<표 3> 실리콘 몰드 조합비

재 료	실리콘(KE-1402)	경화제(CAT1402)
비율(%)	10	1

3) 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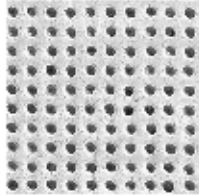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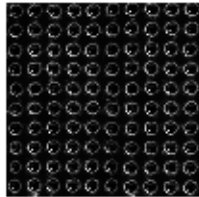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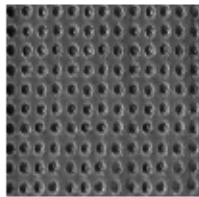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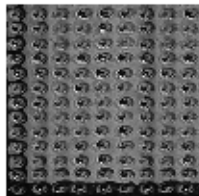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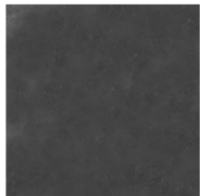
인공의 도시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답답한 느낌과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활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유약 선택에 있어 많은 고려를 하였다. 2차 소성 고화도<표 4>은 전체적 색상에 있어 광택 질의 유약보다 건조한 금속산화물을 사용하여 분무 시유하였으며 분사 전에 붓을 이용하여 기물의 모서리 및 깊은 곳을 유약으로 얇게 칠한 뒤 닦아 낸 후 시유하였다.

3차 중화도 소성<표 5>은 시판되고 Duncan사의 IN 계열 translucent(반투명)의 빨강, 파랑, 노랑, 초록색을 선택하여 4회 반복 붓 시유하였으며, 고화도 소성 이전에 저화도 유약을 칠할 곳을 마스킹테이프와 라텍스로 가려 색유의 선명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표 5>에 나타나듯 백색의 표면에 유약 질과 검정색 고화도 소성위에 색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본 작업에서는 선은 채도를 낮추고 원형의 텍스처는 채도를 밝게 사용하여 선명하게 강조되도록 하였다.

<표 4> 흑유 조합비

원 료	장석(Al_2O_3)	산화철(Fe_2O_3)	망간(Mn_2O_3)
비율(%)	20	20	60

<표 5> 중화도 유약 색상표

유 약	색 상	흑유 + 색상
IN 1003 (Sun Yellow)		
IN 1634 (Royal Blue)		
IN 1004 (Sunset Red)		
IN 1036 / IN 1640 (Bluegrass) / (Foliage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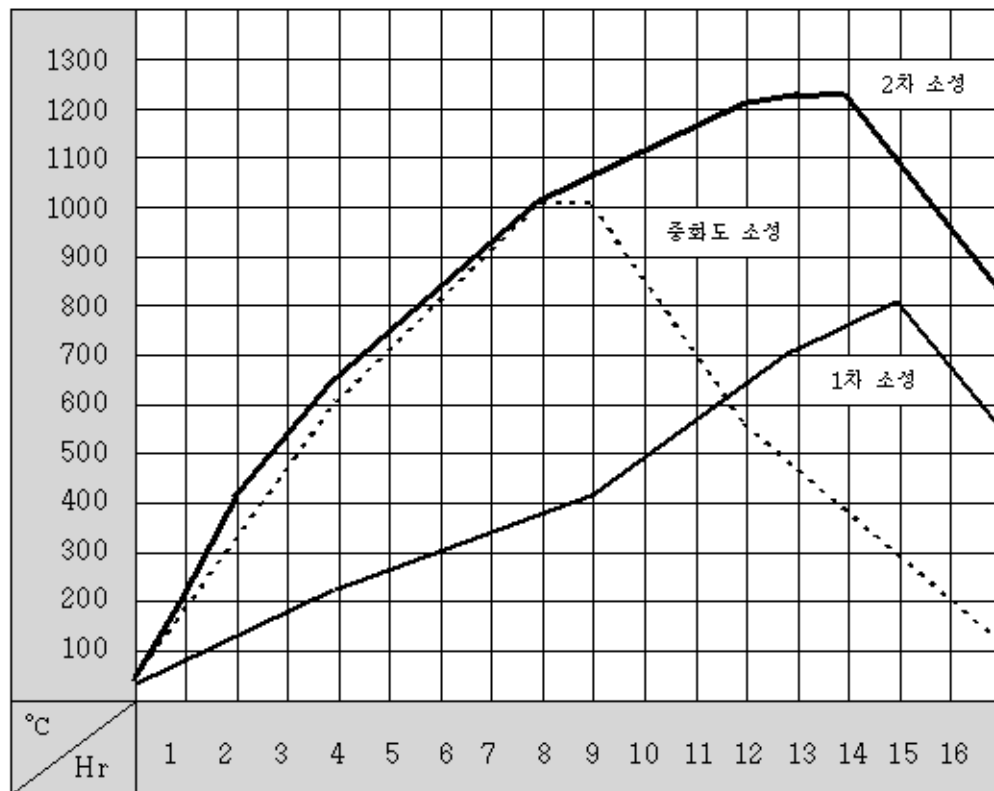
4) 채색

철재로 이뤄진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저화도 유약을 시판하는 Duncan사의 비 소성 실버색상(UM956)의 아크릭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소성 후 간단하게 붓을 이용하여 채색 가능하며 도시의 상징적 소재인 금속의 느낌을 더욱 잘 표현한다.

5) 소성

1차 소성은 판의 결합을 통한 조형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예열 시간을 거쳐 남아 있는 수분을 제거한 뒤 오랜 시간 천천히 800℃로 소성하였다. 2차 소성 또한 전기 가마를 이용하여 고온으로 소성하였으며, 일반적 고온소성 온도보다 30℃낮춘 1220℃로 천천히 온도를 올려 소성하여 파손과 판의 처짐으로 인한 변형을 줄이고자 하였다. 마지막 3차 소성은 색 발색을 고려하여 1000℃ 유약을 사용하여 산화 소성하였다. 전반적 소성에 있어 서서히 냉각하여 급냉에서 오는 파손을 최소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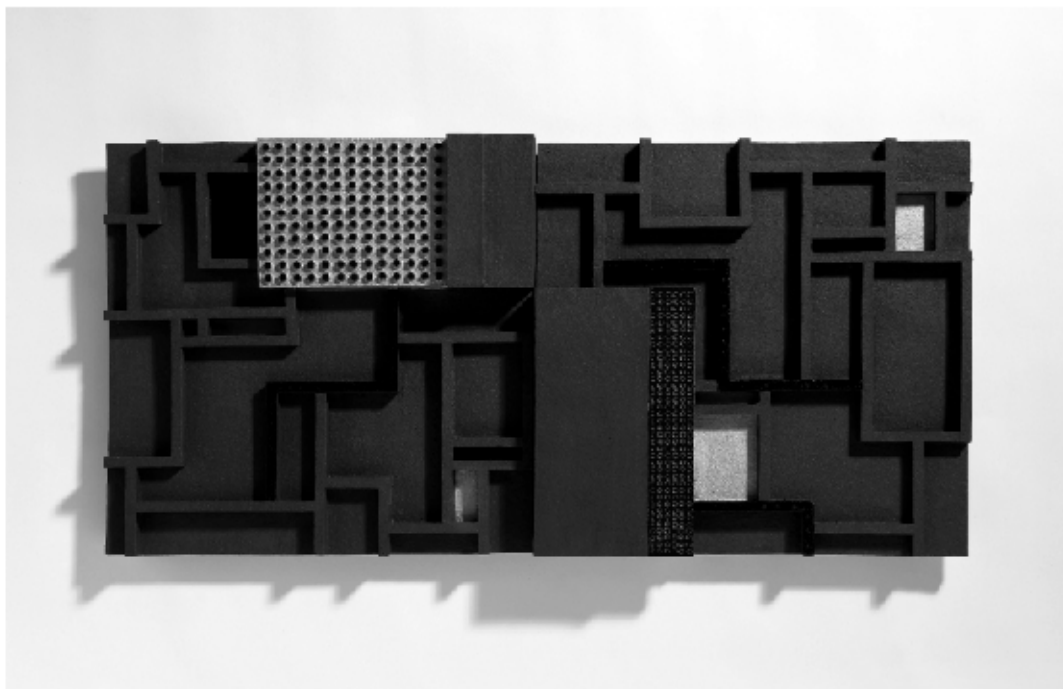
<표 5> 소성 그래프



3. 작품해설

[작품 1] City of Lines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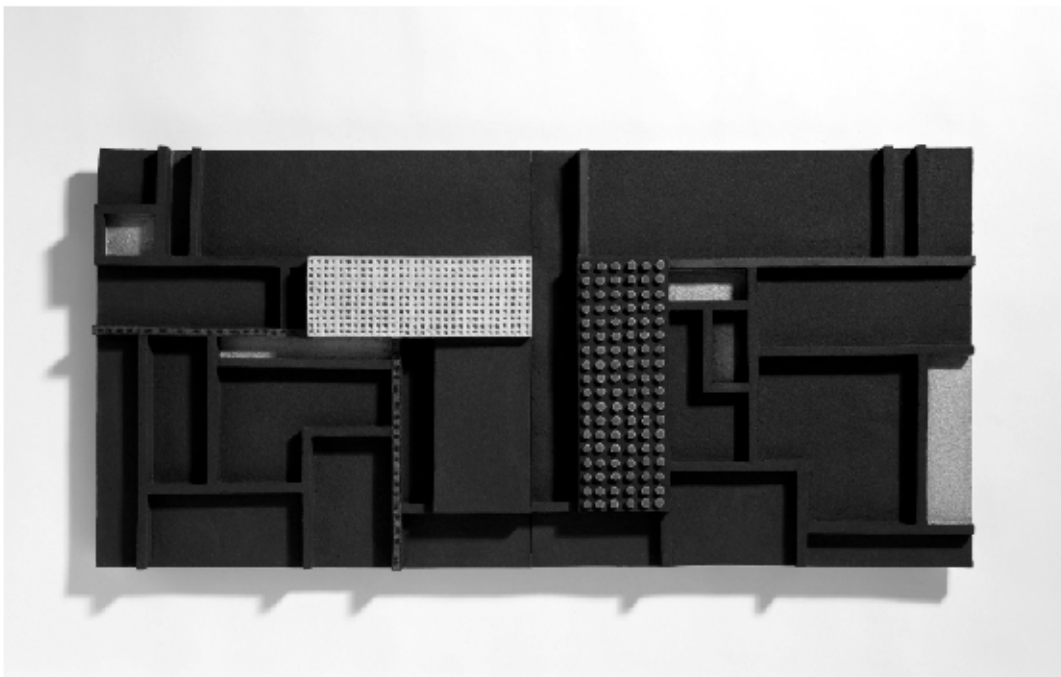
기본 형태는 정사각형 두 개의 판을 연결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복잡하고 조밀하게 연결된 수직, 수평선은 도시를 상공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도로망과 건물의 기하학 형태에서 출발하여 표현하였다. 선과 선이 만들어낸 면과 사각블록의 높낮이는 건물의 높낮이의 표현일수도 있으며, 이러한 미묘한 높이의 차이는 빛에 의해 강하고 선명한 그림자가 더해져 입체감을 드러낸다. 작품 속에 수많은 점의 텍스처는 도시의 모인 수많은 인간의 모습처럼 나타난다. 본 작품은 색상의 배치에 있어 실버를 넓은 면적에 강하게 사용하여 기계화 되어진 차갑고 어두운 도시의 이미지를 극대화 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1] City of Lines - 02. 850 x 425 x 40 mm, 1220°C 산화소성

[작품 2] City of Lines - 01

[작품 1]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색상과 선과 면의 구성의 변화를 주어 표현하였다. 선의 연결에 있어 두 개의 판을 연결하는 긴 선을 배치함으로써 곧게 뻗은 도로처럼 시원함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에 있어도 면적의 크기에 차이를 주어 시각적 지루함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의 중심에 노랑과 빨강의 원형 텍스처 블록을 함께 배치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조밀한 선과 면 그리고 원형의 텍스처는 도시로의 집중을 나타낸다.



[작품 2] City of Lines -01. 850 x 425 x 40 mm, 1220℃ 산화소성

[작품 3] City of Lines-B02

도시의 이미지를 수직, 수평의 선과 사각 면을 쌓아 올려 입체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은 도시에 대표 상징물인 건물의 건축과정과 유사한 층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높고 낮은 수직선의 배치의 구성과 사각면의 다양한 비례의 조합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과 동적인 구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색상 선택에 있어서 파랑과 대비되는 노랑을 사용하여 어두운 표면 위에 두 가지 색상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전체적 형태는 바닥 면은 넓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설계하여 조형적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3] Line of City-B02.

310 x 225 x 820 mm, 1220℃ 산화소성

[작품 4] City of Lines-B01

하나의 사각 면에서 시작되어 두 개의 사각 기둥의 마무리 되는 형태로 사각 블록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존의 형태가 가진 억지없는 답답함을 줄이고 여유의 공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두 개의 사각 기둥은 높이와 형태에 있어 차이를 두어 지루함을 피하고 비워진 공간의 형태 또한 사각형의 덩어리가 아닌 비례의 차이를 통해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상은 채도가 낮은 초록색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흑경과 같은 유리질로 반사 효과가 있어 화려하며, 함께 사용된 채도가 높은 노랑은 밝고 가벼움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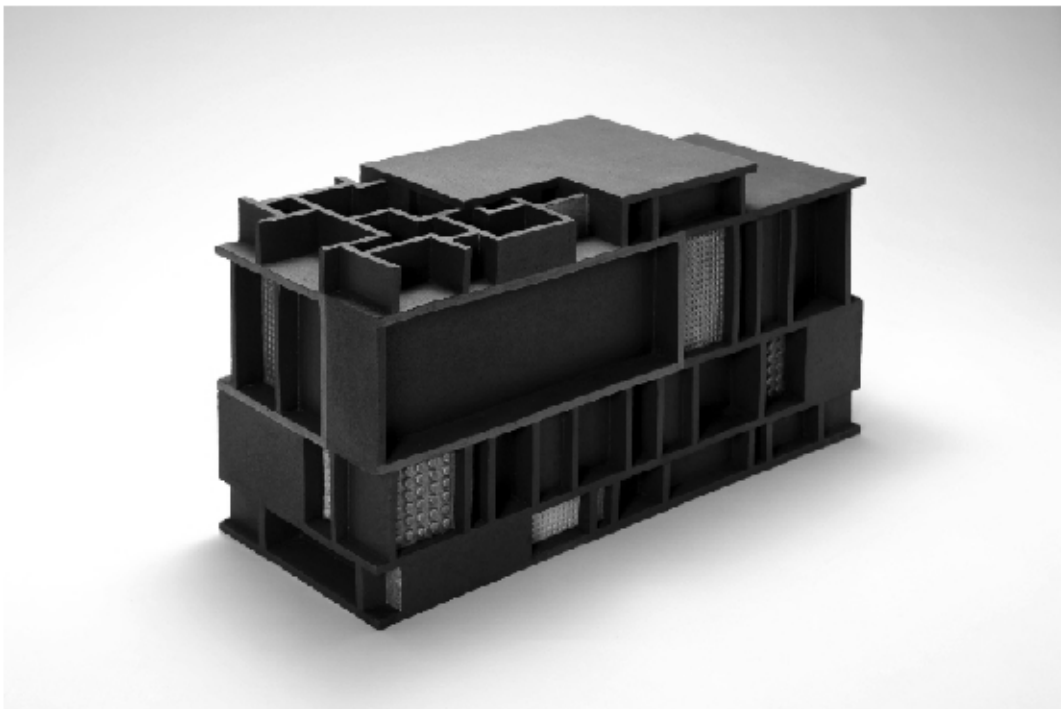
[작품 4] City of Lines-B01.

500 x 210 x 640 mm, 1220°C 산화소성

[작품 5] City of Lines-B03

직사각형 높이가 낮고, 면적이 넓은 형태의 육면체로 기존의 작품보다 크기를 확대하여 무겁고 강한 도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직, 수평 선의 조합을 통한 면의 분할에 있어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큰 사각 면을 배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답답하고 어두움뿐 아닌 시원함을 함께 표현하였으며, 조형적 비례에 있어 조밀한 면과 대비되는 넓은 면적을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변화를 주었으며, 입체의 윗부분 또한 세밀한 선의 조합과 큰 면을 어우러져 표현하였다. 이는 두 가지 상반되는 형태를 대비를 통해 강조하였으며, 색상 사용에 있어 원형 텍스처 면과 더불어 선도 함께 부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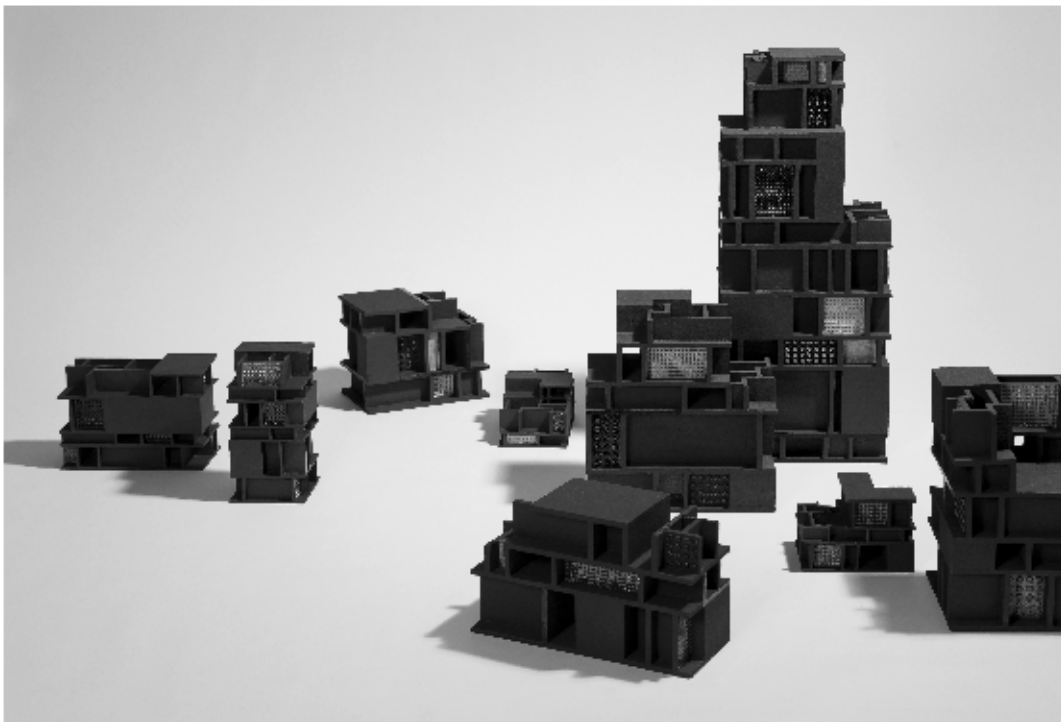
[작품 5]City of Lines-B03. 700 x 260 x 360 mm, 1220℃ 산화소성

[작품 6] City of Lines

수직, 수평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진 도시이미지의 블록을 군집하여 실제 도시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높낮이가 다른 블록들이 어우러져 시각적 즐거움을 주며 좌측에 높이 솟은 조형물은 마치 도시의 랜드마크를 형상하게 되며 이를 중심으로 퍼져나는 것처럼 보인다.

색상 사용에 있어 전체적 통일성을 나타내며 이는 검정색을 기본으로 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과 초록색 및 실버색상을 사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차용하여 즐겁고 밝음과 힘들고 어두움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배치에 있어 수직, 수평 선으로 배치하여 본 작품에서 추구한 형태를 더욱 강조 할 수 있었으나, 조형적 미를 보았을 때 답답하고 평면적인 느낌이 강해 몇 개의 조형물을 각도를 돌려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작품 6] City of Lines. (왼쪽부터) 270 x 135 x 200 / 135 x 135 x 280 / 270 x 180 x 230 / 355 x 145 x 230 / 330 x 185 x 380 / 225 x 315 x 820 / 180 x 135 x 130 mm, 1220°C 산화소성

전시장 전경 A, B, C, D

전시에 있어 입체 조형물은 전시대에 유광의 검정 칠을 한 나무판을 잘라 연출하였으며, 작품을 사면에서 볼 수 있도록 벽면과 거리를 두어 관람객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대 및 작품의 높낮이의 변화를 주었으며 입체 작품 사이사이 벽면 작품을 설치하여 시각적 다양성을 주어 공간 연출하였다.

전시장 전경 D와 같은 구도로 시각을 낮추어 감상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각각의 작품이 중첩되어 하나의 도시의 모습처럼 나타나며, 작품의 감상 위치에 따라 도시를 다시점으로 느낄 수 있다.



전시장 전경 A



전시장 전경 B



전시장 전경 C



전시장 전경 D

IV.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의 이미지 연구를 통해 그 안에 나타나는 형태를 선과 면의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몬드리안의 작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에 나타나는 신조형주의를 바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필연적 공간인 도시를 내적, 외적 이미지의 연구를 통해 수직, 수평의 선과 사각 구조로 정의하여 조형언어로 제시 하고자 하였다.

첫째, 작업 초기에는 사각 면의 분할에 있어 도시의 이미지를 수직, 수평의 복잡하고 조밀한 구성으로 표현하였으나, 후반 작업으로 갈수록 복잡한 면과 넓은 면의 구성을 통해 조형적 비례의 균형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계획에 있어 도시의 이미지를 수직, 수평의 기하학 추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입체로의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각 블록의 건물을 형상화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작업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관람객의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도벽의 경우 면과 선의 구성이 단조로움과 복잡함을 상호 보완하여 조화롭게 구성되었다.

셋째, 도시의 이미지 추출에 있어 일반적 시선이 아닌, 시점의 전환을 통해 상공에서의 내려다 본 도시를 관찰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조형요소인 선과 면의 교차와 이를 통한 사각면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와 유사성을 띄는 기하학 추상표현의 선구자인 몬드리안의 평면의 회화 구성을 넘어, 2D를 입체(3D)로 전환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해 낼 수 있었다.

넷째, 제작과정에 있어 도시의 이미지를 조형으로 표현함에 일반 소지보다 샤모트의 함유가 높아 수축이 적고 견고한 소지를 사용하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출판의 결함을 통한 작업은 판의 휨과 균열을 발생하였으며, 이를 위해 내부적 지지대와 외적 균형을 고려하여 완성하였다. 단순한 반복적 판의 결합이지만 도자 성형의 기술적 향상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도시의 이미지를 도자조형으로 표현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미술사의 접근을 통해 제작에 있어 이론적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상의 순수한 특징을 추출하여 기하학의 추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 본인의 작품 세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안정성만을 고려한 사각형 위에서의 수직, 수평의 결합은 형태의 변형에 제한적 요소가 되었다. 이는 앞으로 연구에서 모색하여 발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의 이미지의 조형언어로서의 제시 및 판의 결합을 통한 도자조형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권용우. (2002). 「도시의 이해」, 박영사.
- [2] 마크 고트디너, 레슬리 버드 저, 남영호, 채윤하 역. (2013). 「도시연구의 주요 개념」, 라움.
- [3] 수잔네 다이허 지음, 주은정 옮김. (2007). 「피트 몬드리안」, 마로니에북스.
- [4] 유재길. (1996).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pp.6~41.
- [5] 정성훈. (2013). 「도시 인간 인권」, 라움.
- [6] Piet Mondrian. (1995). 「바우하우스총서, 5 새로운 조형」, 도서출판 과학기술.
- [7] Piet Mondrian. (2008). 「몬드리안의 방, 신조형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예술」, 열화당.

학위논문

- [8] 김형진. (2006). 「자연과학을 본질로 하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공간에 관한 연구 : 자연현상에 의한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5~37
- [9] 박문희. (2008). 「기하학적 형태를 통한 도시공간의 표현 :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16
- [10] 서범진. (2006).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8~47
- [11] 서슬기. (2006).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시리즈 분석과 이를 응용한 실생활 사례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37
- [12] 서영아. (2011). 「도시공간 이미지를 통한 금속조형 연구 : 육면체 조합을 이용한 장신구표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7
- [13] 손희락. (2002). 「기하학적 추상회화와 색채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과 연관하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19
- [14] 이길영. (2001). 「도시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4
- [15] 이석진. (2009). 「블록의 입체적 결합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표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은숙. (2013). 「추상미술의 중학교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추상의 이해와 표현적 활용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10
- [17] 이주명. (2007). 「도시와 꽃의 상징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7
- [18] 이해훈. (2007). 「도시풍경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19

학 회 논문

- [19] 노영덕 (2010). 「추상미술의 미학적 이해 : 칸딘스키의 경우와 몬드리안의 경우 비교」, 한국기초조형학회, vol.10 no.5, pp. 96~103.

웹사이트

- [20] 구글맵스 - <http://maps.google.co.kr>
- [21]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 [22] 뉴욕현대미술관 (MOMA) - <http://www.moma.org/>

Abstract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by City Image (Based on Mondrian's Neo-Plasticism)

Kim, Tae Hee
(Supervisor Lee, Myung Ah)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 city is artificially established according to human needs, becomes necessary to human life through various changes for a long period and represents the present time when many factors occur from various perspectives. City projects cold and stuffy images and sometimes includes passion and hope. This variety of cities are expressed as an important art material, and the painting <Broadway Boogie-Woogie> by Piet Mondrian was also expressed by constructing this city image.

This study aimed to define the internal and external features as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and square surfaces by analyzing city images and to represent variety of cities through color and circular texture.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represent the implicative city images by a formative language based on Mondrian's Neo-plasticism.

Chapter I, Introduction, clearly describ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In Chapter II, Body, I conducted a study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city, the theme of this study, relationship between human life as a subject of city and city, and formative elements of city image. Furthermore, I aimed to explore the formativeness of city through the structures and features according to chronological changes in cities and analyzed previous works in the various arts on the theme of city. In addition, I conducted a study on

Mondrian, a pioneer of geometric abstract art with similarity to this work, his art world, neo-plasticism, and formative features of cities based on the shape and color through his representative work <Broadway Boogie-Woogie> on city images. Finally, I performed a study on the formativeness by examining previous works with a lattice structure.

Chapter III defined the proportion of lines to surfaces and color composition to represent the city image as a formative language by the product planning, creation process and interpretation established in previous studies and described the technical aspects by the combination of clay tablets and entire production process. In the interpretation of works, the composition of lines and surfaces and formativeness of the whole works were describ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balance the formative proportion through the composition of lines and surfaces, and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to examine visual images based on artistic theory. Moreover, the problems in the production process by the combination of clay tablets enabled to accumulate a great deal of experience.